

한복의 복식미에 대한 인지도 조사연구

-1980년대이후 한복의 형태, 소재, 문양을 중심으로-

동명정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 진 경 옥

目 次

I. 서 론	2. 조사시기 및 절차
II. 한복의 복식미에 대한 선행연구	3. 조사대상자 및 범위
1. 논문을 통한 선행연구	4. 조사처리
2. 한복의 미를 이용한 패션디자인의 부위별 이용사례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I. 연구방법 및 절차	V. 결 론
1. 연구도구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복식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와 같은 외적 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마음 속에 작용하는 독특한 미의식이나 민족의 기질이 그 시대 사람의 감정 표현과 시대적 조형으로 반영된다.¹⁾

이 시대적 조형의 창조 과정은 과거의 경험들이 새로운 패턴, 새로운 의식, 새로운 질서로서 다루어 지는 양식 속에서 조합, 재조합되는 정신적인 과정이다.²⁾ 우리는 한복의 전통양식을 소중한 문화 유산으로 이어 받았고 그 전통의 뚜렷함과 개성미는 세계에 자랑할 만하다.

이러한 우리의 한복은 그동안 현대인의 일상 의복으로는 멀어져 왔으나 근래의 전통문화에 대한 재인식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오리엔탈리즘의 만연 속에 한복이 큰 비중을 차지해 나가면서 한복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졌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많은 디자이너들이 우리의 것, 한국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세계적이며 우리 옷을 세계인에게 입히겠다는 생각으로 한국 고유의 미의식을 바탕으로한 한국의 전통적 표현을 주제로 현대 패션에 전통미를 표현하여 세계무대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무대에서 독창성과 보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인의 눈으로 본 현대 한복의 미적감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고찰하여 한국복식미를 이용한 패션디자인의 이론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각각 현대 한국복식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부위를 조사하여 한복의 현대적 패션디자인 활용에 대한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객관적인 실체속에서 공통적으로 수용되는 미적특성을 규명하여 한복의 복식미를 이용한 패션디자인 개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조규화 (1990), 「복식미학」, (서울 : 수학사), pp.23~29.
2) 이순중(1988), “창조성 개발에 관한 연구”, 조형논문, (서울 : 국민대 환경 디자인연구소), p.130.

1. 한국인이 한복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느끼는 부위와 그 이유를 조사한다.
2. 외국인이 한복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느끼는 부위와 그 이유를 조사한다.
3. 한국인이 한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부위와 그 이유를 조사한다.
4. 외국인이 한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부위와 그 이유를 조사한다.
5. 한국인이 한복소재중 아름다움을 느끼는 소재와 그 이유를 조사한다.
6. 외국인이 한복소재중 아름다움을 느끼는 소재와 그 이유를 조사한다.
7. 한국인이 한복문양중 아름다움을 느끼는 문양과 그 이유를 조사한다.
8. 외국인이 한복문양중 아름다움을 느끼는 문양과 그 이유를 조사한다.

II. 한복의 복식미에 대한 선행연구

1. 선행연구

복식은 문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 양식으로서 문화체계의 일부이며 문화적 전통의 한 표현양식이다.³⁾

서구에서 진행되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서구문화의 국제적인 지배로 인한 국제화된 모더니즘으로 인해 무시되어 왔던 민속복이나 소외된 지역의 복식형태가 도입되어 전통복식의 재해석을 통하여 신비적이며 고유한 이미지를 존중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복의 복식미를 이용한 디자인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개척 단계에 있다.

한복의 복식미를 표현한 현대패션을 다룬 선행연구는 지금까지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한국패션의 고유 디자인에 대한 발전적 모색, 현대 복식 조형의 한국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현대 여성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한국 전통 복식 요소, 한국 전통 복식미의 현대적 활용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한국 복식 전통미를 다룬 패션 디자인을 1980년대 이후 디자이너들의 컬렉션과 학생들의 디자인 경진 대회에서 찾아 디자인 형태를 연구 분석하고 우리 민족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서가 배어나오는 복식의 창조와 더불어 한국만의 패션 디자인 감각이 아닌 국제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보편적 감각으로 융화된 디자인의 개발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논문은 디자인의 전체적 윤곽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고 디자인 개발에 대한 제시는 되지않고 있다.

한복의 복식미를 이용한 디자인 개발 연구로는 남숙현이 “금박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에서 전통 금박문양의 재구성으로 새로운 문양과 세탁에 강한 금박지와 금박문양의 기법을 이용한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김문자는 “조각문양의 조형성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에서 한복 조각문양이 갖는 기하학적 구성의 세련미, 색채의 조화, 조형감각을 현대의상에 표현한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문영희는 “한국 전통 복식의 선을 이용한 디자인”에서 모시, 삼베, 명주를 사용하여 한복의 재단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한복의 깃, 회장등의 부분적 디테일에 변화를 준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아직 한복의 복식미에 대한 보편적인 사례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복식의 윤곽선과 구조선에 한국적인 특성을 지닌 선을 적극 수용하는 디자인, 세계무대에서도 통할수 있는 보편적 감각으로 승화된 디자인을 위한 세분화된 부위별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Jean A Hamillton (1988), Press as a cultural sub-system, Clothing & Textile Research Journal, vol 6 No3, pp.1~3.

2. 디자이너에 의한 한복의 복식미를 이용한 패션 디자인

Tong은 “디자이너가 선택한 중국의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서양복식에 사용되고 있는 중국복식에 대해 내용분석을 통해 그영향을 밝히고 있고⁴⁾ Paoletti는 복식사의 전통적 연구방법의 대안으로서 수량적 자료를 얻기위한 방법으로 내용분석법을 제시하여 객관적인 자료분석과 해석을 강조하고 있다.⁵⁾

우리나라의 전통에 대한 자각이후 한복의 전통미가 패션디자인에 응용된 이래 1980년대이후 본격적으로 한복의 복식미가 표현된 패션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1991년부터 1996년 SFAA의 춘하 콜렉션과 추동콜렉션, 그리고 1996년 파리콜렉션을 자료로 선정하여 디자이너가 한복의 복식미에서 선택한 한복부위, 소재, 문양과 일반인이보

는 아름다운 한복의부위, 소재, 문양을 비교, 분석 및 고찰 하고자 한다.

한복의 전통미를 현대 패션에 나타내고자 힘쓴 디자이너는 진태욱, 설윤희, 이신우, 오은환, 한혜자, 박혜숙, 김동순, 이영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현대패션에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은 박혜숙의 작품으로 한복 소재 모시를 사용한 부드럽고 편안한 실루엣의 디자인이다. 한복의 배래선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한복의 이미지보다는 한복의 느낌이 그대로 표현되었다.

<그림 2>는 한국적 이미지를 주요 테마로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가장 폭넓게 한국의 복식미를 현대패션에 표현하는 디자이너인 설윤희의 작품으로 한국 고유의 기하 문양을 수영복에 색동으로 표현하고 고름을 허리며 장식으로 같은 색동으로 매치 시킨 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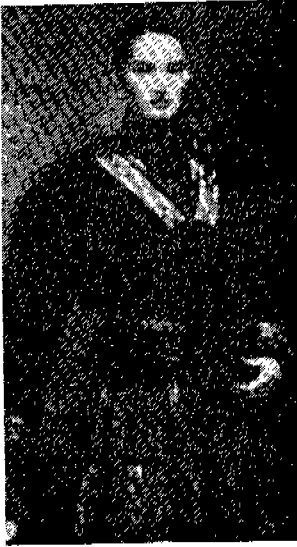
<그림 1> 모시양상볼(박혜숙)
SFAA Collection 1991 s/s
1991년 12월 멋



<그림 2> 색동장식(설윤희)
SFAA Collection 1991 s/s
1991년 12월 멋

4) Yung Sen Tong (1984), Chinese Influence on Selected Designers During the Decades 1961~1980, Masters Dissertation, Ohio University, p.71.

5) 최세완(1991),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의 전통미”, 서울대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p.61.



〈그림 3〉 금박스웨이드 재킷(김동순)
SFAA Collection 1991 f/w
1993년 1월 멋



〈그림 5〉 실크노방소재(진태욱)
SFAA Collection 1993 s/s
1993년 6월 ELLE



〈그림 4〉 저고리치마 비레이용(진태욱)
SFAA Collection 1993 f/w
1994년 1월 멋

〈그림 3〉은 김동순의 스웨이드 재킷으로 금박 문양을 사용하여 한복의 깃과 끝등을 이용한 디자인이다.

스웨이드소재에 한국적 이미지의 금박문양을 사용한 작품으로서 독특한 표현영역의 확대를 보여준다. 〈그림 4〉는 저고리 치마의 비례를 이용한 끈 묶음의 디테일이 있는 한복의 이미지가 잘 표현된 진태욱의 재킷디자인으로 남성 도포를 연상시킨다. 진태욱은 한국의 이미지가 표현된 현대패션을 국제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5〉는 그림 4와 같은 진태욱의 작품으로 한복 소재 실크 노방을 이용한 크링클기법의 조형적 디자인이다. 1980년 이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조명되어 각광을 받고 있는 재질효과가 뛰어난 기법을 한복소재에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그의의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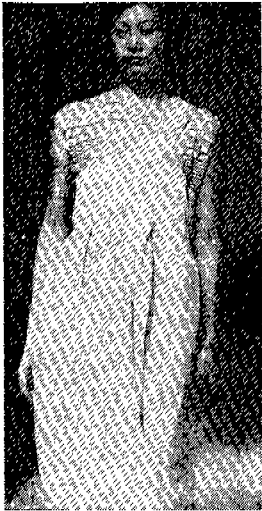
〈그림 6〉과 〈그림 7〉은 한혜자의 작품으로 〈그림 6〉은 저고리와 치마의 비례, 고름장식을 이용한 한복의 이미지를 한 단계 승화시킨 디자인이다. knit top과 한복의 이미지가 느껴지는 스커트의 조화로 현대적인 감각을 표현했다. 〈그림 7〉은 한복의 기본치마 주름인 한쪽 주름을 맞주름으로 바꾸어 표현한 디자인으로 한국적인 선에서 느껴지는 친근감과 우아함을 구김에 신경쓰지 않아도 좋은 소재로 소화했다.



<그림 6> 비레, 고름장식(한혜자)
SFAA Collection 1994 s/s
1994년 6월 ELLE



<그림 8> 양단재킷(오은환)
SFAA Collection 1994 f/w
1995년 1월 ELLE



<그림 7> 치마주름이용(한혜자)
SFAA Collection 1994 s/s
1994년 6월 ELLE



<그림 9> 양단, 자수문양(설윤형)
SFAA Collection 1994 f/w
1995년 1월 ELLE

<그림 8>은 오은환 작품으로 한복소재 양단을 이용한 환상적인 분위기의 재킷 디자인이다. 94년 이후로 오은환, 설윤형, 진태옥등 많은 디자이너들의 양단을 이용한 디자인이 눈에 띈다.

<그림 9>는 설윤형 작품으로 한복소재 양단과

한복문양인 자수문양을 이용한 장식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이다. 자수를 이용한 디자인은 영롱한 색조화와 함께 화려하며 찬란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이후의 디자이너들에게 커다란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 10>은 진태옥의 한복의 당의형태에 심장 생과 꽃의 자수문양을 이용한 작품으로 진스커트와 매치시켜 시각적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그림 11>은 설윤형 작품으로 고풍택소재에 한복의 배래선을 이용하였다. 배래선은 색동과의 배합

으로 인해서 더욱 한국적 이미지를 더하고 있다.

<그림 12>와 <그림 13>은 설윤형 작품으로 색동을 주제로 양단소재를 가지고 조각구성한 디자인으로 비닐스커트를 조화시켜 한복과 현대의상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설윤형의 다른디자인과



<그림 10> 자수문양(진태옥)
SFAA Collection 1995 s/s
1995년 5월 ELLE



<그림 12> 조각구성(설윤형)
SFAA Collection 1996 f/w
1996년 1월 ELLE



<그림 11> 배래선, 색동디자인(설윤형)
SFAA Collection 1996 f/w
1996년 1월 ELLE



<그림 13> 고풍, 깃, 비레이용(설윤형)
SFAA Collection 1996 f/w
1996년 1월 ELLE



<그림 14> 고름, 금박문양(설윤형)
SFAA Collection 1996 f/w
1996년 1월 ELLE

지를 이용하였다. 한복의 디자인을 여러부분에서 이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한복의 이미지 전달보다는 한복의 느낌이 그대로 전해진다.

<그림 14>는 한복의 이미지중 고름과 금박문양을 이용한 설윤형의 디자인으로 사용된 소재는 현대적인 소재인 씨드루 나일론으로서 옛것과 새것의 융합을 구체화 시키고 있다.

<그림 15>는 96년 f/w 파리콜렉션 이영희의 작품으로 한복디자인답게 여과없이 한복을 거의 그대로 국제무대에 재현하였다. 저고리 치마의 상하비례와 깃, 치마폭주름을 이용한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한국적 이미지가 강한 디자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복을 이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본 독창성과 국제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보편성의 결여라는 단점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인의 시각 또는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디자인 연구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림 15> 상하비례, 깃, 주름(이영희)
PARIS Collection 1996 f/w
1996년 4월 ELLE

Ⅲ. 연구방법및 절차

1.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기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도구로 현대 한국 복식미에 대한 인지도 조사 연구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을 12항목으로 분류 작성하여 다지선다형을 만들었다.

설문지 내용으로는

첫째, 한국적 이미지를 느끼는 부위와 아름다움을 느끼는 부위를 저고리와 치마의 비례, 섹, 수구, 진동, 배래, 소매, 도련, 회장, 치마폭, 끝동, 고름, 깃, 색동, 동정을 예로 선택하고 그 이유는 화려, 우아, 전통성, 장식성, 고상함, 자연스러움, 구조적임, 울동적임, 풍성함으로 구성하여 그림을 부위별로 보충제시 하였다.

둘째, 한복에 사용된 소재로는 삼베, 모시, 갑사, 명주, 실크모시, 노방, 합성노방, 양단중에서 옷감 원단 샘플을 보충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장식성이 강하게 표현되었다.

<그림 13>은 고름, 깃, 치마비례의 한복의 이미

셋째, 한복에 이용된 문양으로는 자수문양, 금박문양, 직조문양, 회화문양, 조각구성문양으로 나누었으며 모델이 입은 한복사진을 보충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점은 소재선택과 문양선택에 있어서 색채나 무늬, 질감에 따라 소재나 문양자체보다는 선호하는 색채, 무늬, 질감에 현혹될 우려가 있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색채가 다를경우 전혀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제의 한계점은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면을 고쳐 나가고자 한다.

2. 조사시기 및 절차

1996년 6월 초부터 4주간에 걸쳐 총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461명의 분석가능한 자료를 얻었다.

3. 조사대상자 및 범위

서울, 동경을 조사단위로 잡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조사하였고, 외국인은 다시 서구인과 동양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동양인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수용하였으며 현대패션에 일본 전통복식의 선, 소재, 색상, 문양등을 이용하여 서구 패션에 일본 붐을 일으켜 유럽패션계에 이국적 모드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일본인의 한복미에 대한 의식을 조사범주에 넣기 위하여 동경을 조사단위에 추가하였다.

응답자의 직업은 학생, 주부, 전문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판매직종사자, 개인사업자로 다양하게 선택하였고 응답자의 연령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으로 나누어 비교 조사하였다. 응답대상자의 연령은 10대 23명, 20대 208명, 30대 103명, 40대 82명, 50대이상 45명이고, 국적은 한국인 352명, 서구인 77명, 동양인 32명이며, 성별로는 남자 203명, 여자 257명이다

4. 조사처리

컴퓨터 <SPSS for Windows 6.0>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계 처리했다.

IV. 연구결과및 해석

1. 한국적 이미지를 느끼는 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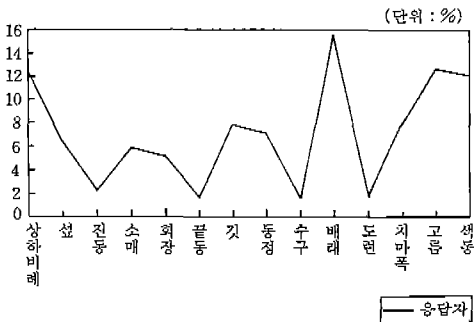
1990년대 이후의 한복의 도식화그림과 한복의 실물제시를 통한 설문지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5%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복에서 대표적 한국의 이미지를 배래부위에서 느끼고 있다. 그다음으로 고풍(12.7%), 상하비례(12.5%), 색동(12.2%)순으로 꼽고 있으며, 상위 4개부위가 비율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또한 진동, 끝동, 수구, 도련 부위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표 1> 한국적 이미지를 느끼는 부위

(단위 : 사람수 /%)

	응답자수
상하비례	54(12.5)
선	28(6.5)
진동	10(2.3)
소매	25(5.8)
회장	22(5.1)
끝동	7(1.60)
깃	34(7.9)
동정	31(7.2)
수구	7(1.6)
배래	65(15.0)
도련	8(1.8)
치마폭	34(7.9)
고름	55(12.7)
색동	53(12.2)
TOTAL	461(100)

응답자



<표 2> 한국적 이미지 : 한국인과 외국인 비교

(단위 : 사람수 / %)

	한국인	외국인	TOTAL
상하비레	45(12.8)	9(11.1)	54(12.5)
섶	23(6.5)	5(6.2)	28(6.5)
진동	6(1.7)	4(4.9)	10(2.3)
소매	21(6.0)	4(4.9)	25(5.8)
회장	21(6.0)	1(1.2)	22(5.1)
끌동	7(2.0)		7(2.0)
깃	26(7.4)	8(9.9)	34(7.9)
동정	26(7.4)	5(6.2)	31(7.2)
수구	6(1.7)	1(1.2)	7(1.6)
배래	56(15.9)	9(11.1)	65(15.0)
도련	5(1.4)	3(3.7)	8(1.8)
치마폭	32(9.1)	2(2.5)	34(7.9)
고름	37(10.5)	18(22.2)	55(12.7)
색동	41(11.6)	12(14.8)	53(12.2)
TOTAL	352(81.3)	81(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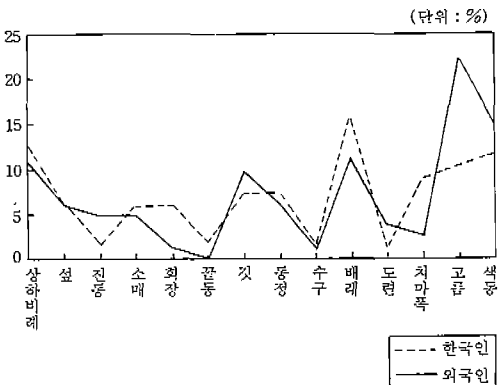
국적별로 한국인과 외국인을 비교하면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인은 첫째 배래(15.5%)에서, 둘째 저고리와 치마의 상하비레(12.8%)에서, 셋째 색동(11.6%)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느끼며, 외국인은 첫째 고름(22%)에서, 둘째 색동(14.8%)에서, 셋째 배래(9%), 순서로 한국적인 이미지를 찾는다.

외국인중에서 동양인과 서구인을 비교해보면 <표 3>과 같이 동양인이 저고리와 치마의 상하비레와 색동에서 그 이미지를 찾고 있는데 비해 서구인은 고름과 배래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느낀다.

<표 3> 한국적 이미지를 느끼는 부위 : 한국, 동양, 서구 비교

(단위 : 사람수 / %)

	한국	동양	서구	TOTAL
상하비레	45(12.8)	8(25.8)	1(2.0)	54(12.5)
섶	23(6.5)	2(6.5)	3(6.0)	28(6.5)
진동	6(1.7)	2(6.5)	2(4.0)	10(2.3)
소매	21(6.0)		4(8.0)	25(5.8)
회장	21(6.0)	1(3.2)		22(5.1)
끌동	7(2.0)			7(1.6)
깃	26(7.4)	2(6.5)	6(12.0)	34(7.9)
동정	26(7.4)	2(6.5)	3(6.0)	31(7.2)
수구	6(1.7)		1(2.0)	7(1.6)
배래	56(15.9)	1(3.2)	8(16.0)	65(15.0)
도련	5(1.4)		3(6.0)	8(1.8)
치마폭	32(9.1)		2(4.0)	34(7.9)
고름	37(10.5)	6(19.4)	12(24.0)	55(12.7)
색동	41(11.6)	7(22.6)	5(10.0)	53(12.2)
TOTAL	352(81.3)	31(7.2)	50(11.5)	



2. 한국적 이미지를 느끼는 부위로서 선택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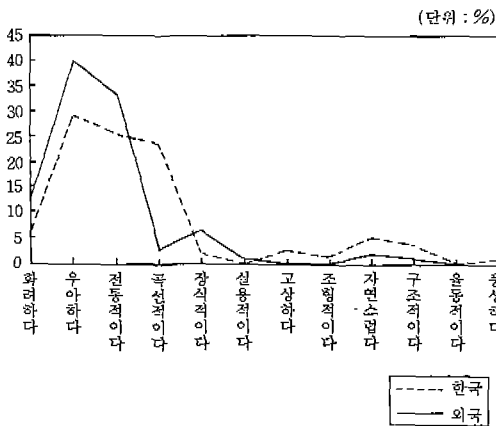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가 대표적 한국의 이미지를 배래, 고름, 저고리 치마의 상하비레의 순으로 꼽는 이유는 31.8%가 첫째 우아하다, 27.5%가 둘째 전통적이라고 꼽고있다.

<표 4>와 같이 한국 사람이 한국적 이미지를 첫째 배래, 둘째 저고리와 치마의 상하비레, 셋째 색동에서 느낀 이유와 외국인이 한국적 이미지를 첫째 고름과 둘째 색동, 셋째 배래 순으로 느낀 이유는 똑같이 한국인의 29.3%, 외국인의 40.2%가 우아하다를 첫째로 선택했고 한국인의 25.6%, 외국인의 36%가 전통적이다를 둘째로 선택했다. <표 5>와 같이 동양인과 서구인으로 나눈 것도 마찬가지로 결과이다.

<표 4> 한국적 이미지를 느끼는 이유 : 한국인과 외국인 비교

(단위 : 사람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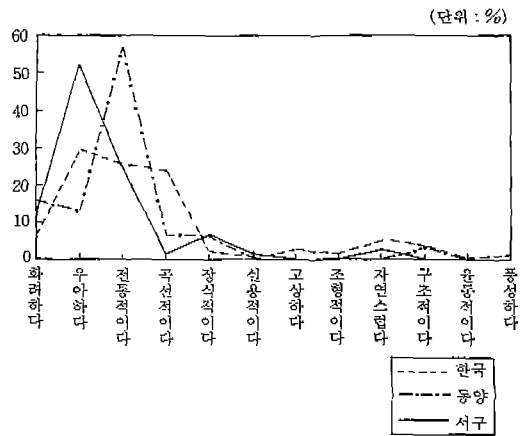
	한국	외국	TOTAL
화려하다	20(5.7)	14(13.1)	34(7.4)
우아하다	103(29.3)	43(40.2)	146(31.8)
전통적이다	90(25.6)	36(33.6)	126(27.5)
꼭선적이다	83(23.6)	3(2.8)	86(18.7)
장식적이다	7(2.0)	7(6.5)	14(3.1)
실용적이다	0	1(0.9)	1(0.2)
고상하다	9(2.6)	0	9(2.0)
조형적이다	5(1.4)	0	5(1.1)
자연스럽다	18(5.1)	2(1.9)	20(4.4)
구조적이다	13(3.7)	1(0.9)	14(3.1)
움동적이다	1(0.3)	0	1(0.2)
풍성하다	3(0.9)	0	3(0.7)
TOTAL	2(76.7)	7(23.3)	(100.0)



<표 5> 한국적 이미지를 느끼는 이유 : 한국, 동양, 서구 비교

(단위 : 사람수 / %)

	한국	동양	서구	TOTAL
화려하다	20(5.7)	5(15.6)	9(12.0)	34(7.4)
우아하다	103(29.3)	4(12.5)	39(52.0)	146(31.8)
전통적이다	90(25.6)	18(56.3)	18(24.0)	126(27.5)
꼭선적이다	83(23.6)	2(6.3)	1(1.3)	86(18.7)
장식적이다	7(2.0)	2(6.3)	1(1.3)	14(3.1)
실용적이다	0	0	1(1.3)	1(0.2)
고상하다	9(2.6)	0	0	9(2.0)
조형적이다	5(1.4)	0	0	5(1.1)
자연스럽다	18(5.1)	0	2(2.7)	20(4.4)
구조적이다	13(3.7)	1(3.1)	0	14(3.1)
움동적이다	1(0.3)	0	0	1(0.2)
풍성하다	3(0.9)	0	0	3(0.7)
TOTAL	352(76.7)	32(7.0)	75(16.3)	459(100.0)



3. 아름다움을 느끼는 부위

<표 6>과 같이 전체 응답자의 14.3%가 한복의 아름다운 부위를 첫째 고름에서 느끼고 있다. 그 다음은 저고리와 치마의 상하비레(13.6%), 배래(12.7%) 치마폭의 주름(11.8%)에서 느끼고 있으며 상위 4개 부위가 비율에 있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또한 수구, 끝동, 진동에서는 아름다움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

<표 6> 아름다운 부위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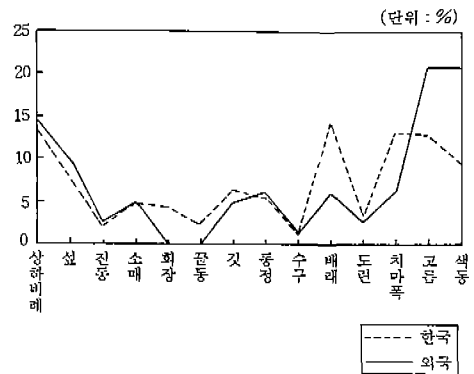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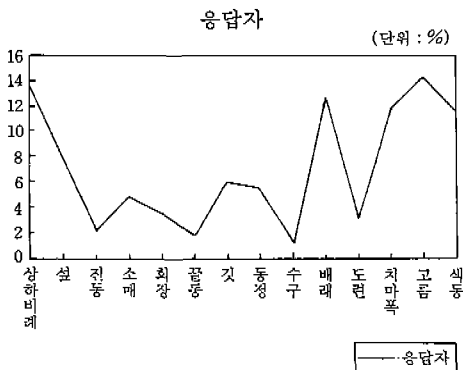
(단위 : 사람수 /%)

	응답자
상하비례	59(13.6)
섶	35(8.1)
진동	9(2.1)
소매	21(4.8)
회장	15(3.5)
팔동	8(1.8)
깃	26(6.0)
동정	24(5.5)
수구	5(1.2)
배래	55(12.7)
도련	14(3.2)
치마폭	51(11.8)
고름	62(14.3)
색동	50(11.5)
TOTAL	461(100.0)

<표 7> 아름다운 부위 선호도 : 한국인, 외국인 비교

(단위 : 사람수 /%)

	한국	외국	TOTAL
상하비례	47(13.4)	12(14.6)	59(13.6)
섶	27(7.7)	8(9.8)	35(8.1)
진동	7(2.0)	2(2.4)	9(2.1)
소매	17(4.8)	4(4.9)	21(4.8)
회장	15(4.3)	0	15(3.5)
팔동	8(2.3)	0	8(1.8)
깃	22(6.3)	4(4.9)	26(6.0)
동정	19(5.4)	5(6.1)	24(5.5)
수구	4(1.1)	1(1.2)	5(1.2)
배래	50(14.2)	5(6.1)	55(12.7)
도련	12(3.4)	2(2.4)	14(3.2)
치마폭	46(13.1)	5(6.1)	51(11.8)
고름	45(12.8)	17(20.7)	62(14.3)
색동	33(9.4)	17(20.7)	50(11.5)
TOTAL	352(81.1)	50(11.5)	434(100.0)



국적별로 한국인과 외국인을 비교하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인은 첫째 13.4%가 저고리와 치마의 상하비례에서, 그 다음은 치마폭의 주름(13.1%), 고름(12.8%)의 순으로 아름다운 부위를 찾고 있는데 이 세 부위에 대한 선호도는 거의 비슷하다. 외국인은 고름과 색동을 똑같이 색동(20.7%), 고름(20.7%)로 첫째로 선택하고 있다. 외국인 중에서 동양인과 서구인을 비교해 보면 <표 8>에서와 같이 동양인은 저고리와 치마의 상하 비례(32.3%)와 고름(22.6%)에서, 서구인은 색동(21.6%)과 고름(19.6%)에서 아름다움을 느

끼고 있다. 외국인 중에서 동양인과 서구인이 공통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낀 부위는 고름이다.

따라서 한국적 이미지를 느끼는 부위와 아름다움을 느끼는 부위를 비교해보면 한국적 이미지를 느끼는 부위는 배래, 저고리와 치마의 상하비례, 고름, 색동순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부위는 고름, 저고리와 치마의 상하비례, 배래, 치마폭의 주름순으로 상위 3개부위가 공통적으로서, 한국적 이미지를 느끼는 부위와 한국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부위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표 11〉 아름다운 부위 선택 이유 : 한국, 동양, 서구 비교

(단위 : 사람수 /%)

	한국	동양	서구	TOTAL
우아하다	169(48.3)	18(56.3)	50(66.7)	237(51.9)
꼭선적이다	74(21.1)	6(18.8)	4(5.3)	84(18.4)
직선적이다	2(0.6)	2(6.3)	1(1.3)	5(1.1)
강조적이다	19(5.4)	3(9.4)	3(4.0)	25(5.5)
장식적이다	17(4.9)	2(6.3)	9(12.0)	28(6.1)
조형적이다	17(4.9)	0	4(5.3)	21(4.6)
자연스럽다	26(7.4)	1(3.1)	2(2.7)	29(6.3)
구조적이다	3(0.9)	0	0	3(0.7)
울동적이다	9(2.6)	0	0	9(2.0)
풍성하다	9(2.6)	0	0	9(2.0)
감각적이다	11(3.1)	0	0	11(2.4)
TOTAL	350(76.6)	32(7.0)	75(16.4)	457(100.0)

외국인을 동양인과 서구인으로 나누어 보면 동양인과 서구인 양쪽다 각각 56.3%와 66.7%로 우아하대를 그 첫번째 이유로 꼽았고 둘째 이유로 동양인은 18.8%가 꼭선적이다를, 서구인은 12%가 장식적이다를 선택했다.

여기서 볼 때 서양인은 동양인보다 장식적인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아름다움을 느끼는 소재

전체 응답자가 한복에 사용된 소재중 아름다운 소재를 〈표 12〉에서와 같이 22%가 명주를 첫째로 꼽고 있다. 그다음은 감사(19%), 모시(16%)의 순서로 선택하고있다. 또한 합성노방은 소재로서 아름다움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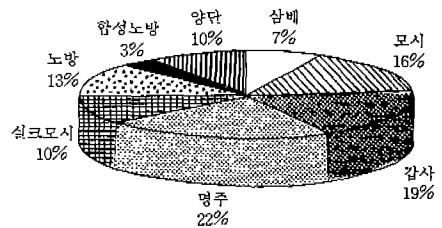
국적별로 한국인과 외국인을 비교하면 〈표 13〉에서와 같이, 한국인은 첫째, 모시(20.5%), 둘째 감사(18.8%), 셋째 명주(15.9%)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며 외국인은 44.4%가 첫째 명주를 꼽아 그 선호도가 뛰어나며 21.3%가 둘째로 감사를 꼽는다.

〈표 12〉 아름다운 소재 선호도

(단위 : 사람수 /%)

	응답자
삼베	30(6.6)
모시	73(16.1)
감사	88(19.4)
명주	103(22.7)
실크모시	45(9.9)
노방	58(12.8)
합성노방	13(2.9)
양단	44(9.7)
TOTAL	46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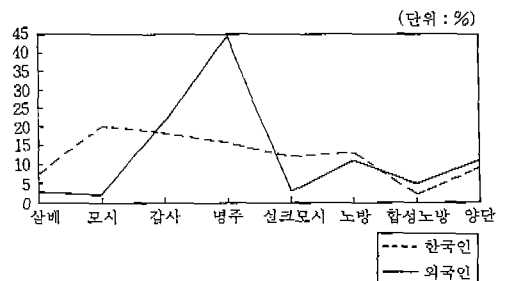
아름다운 소재 선호도 비교



〈표 13〉 아름다운 소재 선호도 : 한국인, 외국인 비교

(단위 : 사람수 /%)

	한국인	외국인	TOTAL
삼베	27(7.8)	3(2.8)	30(6.6)
모시	71(20.5)	2(1.9)	73(16.1)
감사	65(18.8)	23(21.3)	88(19.4)
명주	55(15.9)	48(44.4)	103(22.7)
실크모시	42(12.1)	3(2.8)	45(9.9)
노방	46(13.3)	12(11.1)	58(12.8)
합성노방	8(2.3)	5(4.6)	13(2.9)
양단	32(9.2)	12(11.1)	44(9.7)
TOTAL	346(76.2)	108(23.8)	454(100.0)



4. 아름다움을 느끼는 부위로서 선택한 이유

전체 응답자가 <표 9>와 같이 한복의 아름다운 부위로 고름, 저고리와 치마의 상하비례, 배래를 선택한 이유는 51.5%가 첫째 우아하다, 18.4%가 둘째 곡선적이라는 선택하여 우아하다는 이유가 절대적이다.

한국인은 한복의 아름다운 부위를 <표 10>에서와 같이 저고리와 치마의 상하비례, 치마폭의 주

름, 고름에서 느낀 이유를 48.3%가 우아하다는 21.1%가 곡선적이라는 꼽고, 외국인은 고름과 색등을 선택한 이유를 63.6%가 우아하다는, 10.3%가 장식적이라는 선택하여 두 그룹 다 우아하다는 이유가 우월하게 나타났다. <표 11>에서와 같이

<표 8> 아름다운 부위 선호도 : 한국, 동양, 서구 비교
(단위 : 사람수 /%)

	한국	동양	서구	TOTAL
상하비례	47(13.4)	10(32.3)	2(3.9)	59(13.6)
섶	27(7.7)	3(9.7)	5(9.8)	35(8.1)
진동	7(2.0)	0	2(3.9)	9(2.1)
소매	17(4.8)	0	4(7.8)	21(4.8)
회장	15(4.3)	0	0	15(3.5)
끝동	8(2.3)	0	0	8(1.8)
깃	22(6.3)	0	4(7.8)	26(6.0)
동정	19(5.4)	2(6.5)	3(5.9)	24(5.5)
수구	4(1.1)	0	1(2.0)	5(1.2)
배래	50(14.2)	0	5(9.8)	44(12.7)
도련	12(3.4)	0	2(3.9)	14(3.2)
치마폭	46(13.1)	3(9.7)	2(3.9)	51(11.8)
고름	45(12.8)	7(22.6)	10(19.6)	62(14.3)
색등	33(9.4)	6(19.4)	11(21.6)	50(11.5)
TOTAL	352(81.1)	31(7.1)	51(11.8)	434(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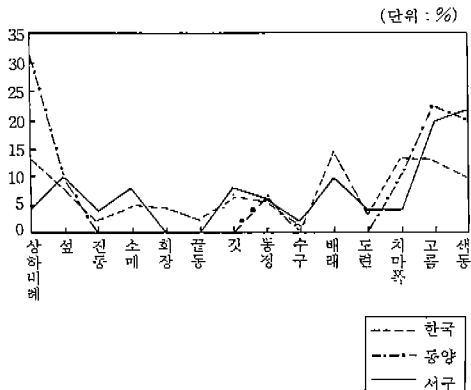
<표 9> 아름다운 부위 선택
(단위 : 사람수 /%)

	응답자
우아하다	327(51.9)
곡선적이다	84(18.4)
직선적이다	5(1.1)
강조적이다	25(5.5)
장식적이다	28(6.1)
조형적이다	21(4.6)
자연스럽다	29(6.3)
구조적이다	5(1.1)
움동적이다	3(0.7)
풍성하다	9(2.0)
감각적이다	11(2.4)
TOTAL	461(100.0)

<표 10> 아름다운 부위 선택 이유 : 한국인과, 외국인 비교

(단위 : 사람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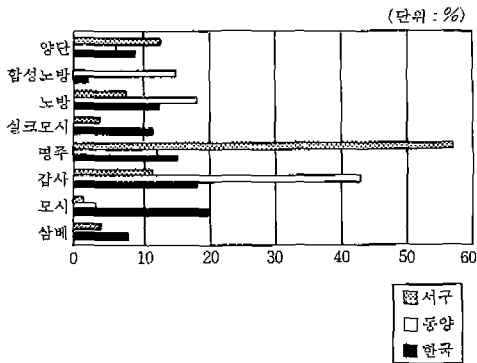
	한국	외국	TOTAL
우아하다	169(48.3)	68(63.6)	237(51.9)
곡선적이다	74(21.1)	10(9.3)	84(18.4)
직선적이다	2(0.6)	3(2.8)	5(1.1)
강조적이다	19(5.4)	6(5.6)	25(5.5)
장식적이다	17(4.9)	11(10.3)	28(6.1)
조형적이다	17(4.9)	4(3.7)	21(4.6)
자연스럽다	26(7.4)	3(2.8)	29(6.3)
구조적이다	3(0.9)	2(1.9)	3(0.7)
움동적이다	9(2.6)	0	9(2.0)
풍성하다	9(2.6)	0	9(2.0)
감각적이다	11(3.1)	0	11(2.4)
TOTAL	350(76.6)	107(23.4)	457(100.0)



〈표 14〉와 같이 외국인 중 동양인과 서구인을 비교해보면 동양인은 첫째 8%가 갑사를, 둘째 18.8%가 노방을 선택하고 있고 서구인은 첫째 명주, 둘째 갑사를 꼽고 있는데 이 경우 명주에 대한 선호도가 57.9%로 둘째인 갑사에 대한 선호도 11.8%에 비해 서구인의 명주에 대한 절대적인 선호를 알 수 있다.

〈표 14〉 아름다운 소재 선호도 : 한국, 동양, 서구 비교
(단위 : 사람수 /%)

	한국	동양	서구	TOTAL
삼베	27(7.8)	0	3(3.9)	30(6.6)
모시	71(20.5)	1(3.1)	1(1.3)	73(16.1)
갑사	65(18.8)	14(43.8)	9(11.8)	88(19.4)
명주	55(15.9)	4(12.5)	44(57.9)	03(22.7)
실크모시	42(12.1)	0	3(3.9)	45(9.9)
노방	46(13.3)	6(18.8)	6(7.9)	58(12.8)
합성노방	8(2.3)	5(15.6)	0	13(2.9)
양단	32(9.2)	2(6.3)	10(13.2)	44(9.7)
TOTAL	346(76.2)	32(7.0)	76(16.7)	454(100)



이것을 살펴 볼 때 소재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명주와 갑사에 대해서, 한국인은 모시에 대해서 절대적인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서구인은 한국인이 절대적인 선호를 하고있는 모시에 대해 아주 낮은 (1.3%)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6. 아름다움을 느끼는 소재로서 선택한 이유

전체 응답자가 아름다운 소재로서 선택한 이유를 34.5%가 첫째 천연적이다, 20.1%가 둘째 섬세하다는 이유로 선택했다.

한국인이 아름다운 소재를 모시 갑사 명주에서 느낀 이유와 외국인이 명주와 갑사에서 느낀 이유는 〈표 15〉와 같이 각각 32.8%, 39.8%로 첫째 천연적이다, 둘째 섬세하다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공통적으로 꼽고 있다.

외국인을 동양인과 서구인으로 나누어 보면 〈표 16〉에서와 같이, 첫째 천연적인 소재를 이유로 꼽고 있고 두번째 이유로는 동양인은 화려한 소재를, 서구인은 섬세한 소재를 꼽고 있다.

〈표 15〉 아름다운 소재 선택 이유 : 한국인, 외국인 비교
(단위 : 사람수 /%)

	한국	외국	TOTAL
천연적이다	113(32.8)	43(39.8)	156(34.6)
가볍다	34(9.9)	16(14.8)	50(11.1)
섬세하다	67(19.5)	24(22.2)	91(20.1)
부드럽다	55(16.0)	7(6.5)	62(13.7)
광택이있다	7(2.0)	4(3.7)	11(2.4)
선율적이다	19(5.5)	3(2.8)	22(4.9)
화려하다	49(14.2)	11(10.2)	60(13.3)
TOTAL	344(76.1)	108(23.9)	452(100)

〈표 16〉 아름다운 소재 선택 이유 : 한국, 동양, 서구 비교
(단위 : 사람수 /%)

	한국	동양	서구	TOTAL
천연적이다	113(32.8)	9(28.1)	34(44.7)	156(34.6)
가볍다	34(9.9)	6(18.8)	10(13.2)	50(11.1)
섬세하다	67(19.5)	5(15.6)	19(25.0)	91(20.1)
부드럽다	55(16.0)	5(15.6)	2(2.6)	62(13.7)
광택이있다	7(2.0)		4(5.3)	11(2.4)
선율적이다	19(5.5)		3(3.9)	22(4.9)
화려하다	46(14.2)	7(21.9)	4(5.3)	60(13.3)
TOTAL	344(76.1)	32(7.1)	76(16.8)	452(100)

여기서 볼 때 각종 합성 소재가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 천연적인 소재에 대한 선호도를 여전히 강하게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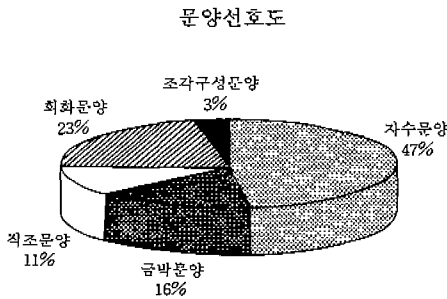
7. 아름다움을 느끼는 문양

〈표 17〉에서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47.7%가 한복에 사용된 문양중 아름다운 문양을 자수문양으로 선택하고 다음으로 회화문양(23.1%), 금박문양(15.8%)의 순으로 선택하고 있다. 또한 조각구성 문양은 선호도가 매우 낮게(3%) 나타나고 있다.

〈표 17〉 아름다운 문양 선호도

(단위 : 사람수 /%)

	응답자
자수문양	217(47.7)
금박문양	72(15.8)
직조문양	48(10.5)
회화문양	105(23.1)
조각구성문양	1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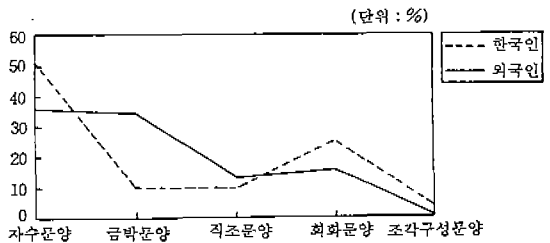
국적별로 한국인과 외국인을 비교하면 한국인은 〈표 18〉에서와 같이 첫째 자수문양(51.3%), 둘째 회화문양(25.4%)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며 외국인은 첫째 자수문양(39%), 둘째 금박문양(34.3%)으로 자수문양과 금박문양의 선호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중에서 동양인과 서구인을 비교해보면

〈표 18〉 아름다운 문양 선호도 : 한국인, 외국인 비교

(단위 : 사람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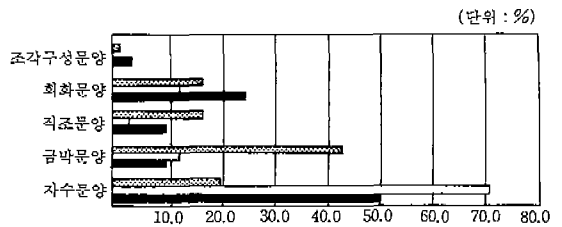
	한국인	외국인	TOTAL
자수 문양	178(51.3)	39(36.1)	217(47.7)
금박문양	35(10.1)	37(34.3)	72(15.8)
직조문양	34(9.8)	14(13.0)	48(10.5)
회화문양	88(25.4)	17(15.7)	105(23.1)
조각구성문양	12(3.5)	1(0.9)	13(2.9)
TOTAL	247(6.3)	108(23.7)	



〈표 19〉 아름다운 문양 선호도 : 한국, 동양, 서구 비교

(단위 : 사람수 /%)

	한국	동양	서구	TOTAL
자수문양	178(51.3)	23(71.9)	16(21.6)	217(47.7)
금박문양	35(10.1)	4(12.5)	33(43.4)	72(15.8)
직조문양	34(9.8)	1(3.1)	13(17.1)	48(10.5)
회화문양	88(25.4)	4(12.5)	13(17.1)	105(23.1)
조각구성문양	12(3.5)	-	1(1.3)	13(2.9)
TOTAL	347(76.3)	32(7.0)	76(16.7)	



〈표 19〉에서와 같이 동양인은 자수 문양에 71.9%로 절대적인 선호도를 보이고있고 서구인은 자수 문양(21.2%)보다 금박 문양(43.4%)에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볼때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 절대적인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자수문양과 외국인이 선호하는 금박문양의 디자인 개발이 국제무대로 진출하는데 있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8. 아름다움을 느끼는 문양으로서 선택한 이유

전체 응답자가 아름다운 문양으로서 선택한 이유를 36.6%가 우아하다를 첫째로 선택하고 있고 25.5%가 화려하다를 11.8%가 은은하다를 꼽고 있다. 국적별로 비교하면 <표 20>에서와 같이 한국인이 아름다운 문양을 자수 문양, 회화문양에서 느낀 이유와 외국인이 자수문양, 금박문양에서 느낀 이유는 첫째 우아하다(한국인33.9%와 외국인 45.3%) 둘째 화려하다(한국인 45.3%와 외국인 30.2%)로 공통적이다.

외국인을 동양인과 서구인으로 나누어 보면 <표 21>에서와 같이 동양인은 61.3%가 화려하다를 29%가 우아하다를 선택하였고 서구인은 52%가 우아하다를, 17.3%가 화려하다의 순으로 선택하고 있어 선호도에 대한 순서는 틀리지만 문양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는 공통적이다.

<표 20> 아름다운 문양 선택 이유 : 한국인, 외국인 비교 (단위 : 사람수 /%)

	한국인	외국인	TOTAL
화려하다	83(24.1)	32(30.2)	115(25.5)
우아하다	117(33.9)	48(45.3)	165(36.6)
회화적이다	23(6.7)	4(3.8)	27(6.0)
구조적이다	4(1.2)	1(0.9)	5(1.1)
자연스럽다	34(9.9)	10(9.4)	44(9.8)
장식적이다	7(2.0)	8(7.5)	15(3.3)
섬세하다	19(5.5)	1(0.9)	20(4.4)
은은하다	52(15.2)	1(0.9)	53(11.8)
조형적이다	6(1.7)	1(0.9)	7(1.6)
TOTAL	345(76.5)	106(23.5)	451(100)

<표 21> 아름다운 문양 선택 이유 : 한국인, 외국인 비교 (단위 : 사람수 /%)

	한국	도양	서구	TOTAL
화려하다	83(24.1)	19(61.3)	13(17.3)	115(25.5)
우아하다	117(33.9)	9(29.0)	39(52.0)	165(36.6)
회화적이다	23(6.7)	1(3.2)	3(4.0)	27(6.0)
구조적이다	4(1.2)		1(1.3)	5(1.1)
자연스럽다	34(9.9)	1(3.2)	9(12.0)	44(9.8)
장식적이다	7(2.0)	1(3.2)	7(9.3)	15(3.3)
섬세하다	19(5.5)		1(1.3)	20(4.4)
은은하다	52(15.1)		1(1.3)	53(11.8)
조형적이다	6(1.7)		1(1.3)	7(1.6)
TOTAL	345(76.5)	31(6.9)	75(16.6)	451(10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적 이미지를 느끼는 부위와 아름다움을 느끼는 부위는 고름, 배래, 저고리 치마의 상하비례로, 우선순위 3부위는 같고 그다음으로 한국적 이미지에서는 색동을 추가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부위에서는 치마폭의 주름을 추가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 한국적 이미지를 느끼는 부위와 한복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부위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 앞으로 디자이너가 고려해야 할 디자인을 살펴보면 한국무대에서는 저고리와 치마의 상하비례, 치마폭의 주름, 고름을 이용한 디자인을, 국제 패션무대에서 한국적 이미지가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름과 색동을 이용한 디자인을 개발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자인 방향으로는 한국무대에서는 우아하고 곡선적인 디자인을, 국제무대에서는 우아하고 곡선적이며 또한 장식적인 디자인의 개발이 요구된다.

2. 소재사용에 있어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에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적 이미지가 있는 디자인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명주와 갑사소재를 이용한 디자인이 개발되어야 하겠고, 국제무대에 있어 모시의 사용은 절제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전반적인 소재의 방향을 살펴보면, 천연적이고 섬세한 느낌이나 소재를 사용한 디자인 개발이 요구되고 국제무대에서는 천연적이고 섬세할 뿐 아니라 화려한 소재를 이용한 디자인이 요구된다.

3. 문양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자수문양을 이용한 디자인 개발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덧붙여서 한국무대에서는 자수문양과 회화문양,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국제무대에서는 자수문양과 금박문양의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금박문양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경우 자수문양과 거의 같은 절대적인 지지도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유성을 보여주는 주목받을 수 있는 문양으로 나타났다.

문양을 선택함에 있어 위에 열거한 문양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볼 때 우아하고 화려한 감각의 문양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한복의 복식미를 이용한 디자인 개발에 있어 현대에 맞는 전통의 재창조 작업을 통해서 한국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세계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보편적 감각으로 승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세계 패션무대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디자인 개발을 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90, pp.23~29.
- 2) 이순중, “창조성 개발에 관한 연구”, 조형논문, 국민대 환경 디자인 연구소, 1988, p.130.
- 3) 고복남, 「한국의복의 유형과 형식」, 집문당,

1987, p.15.

- 4) 최세완, “현대 패션에 표현된 한국의 전통미”, 서울대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1
- 5)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1992
- 6) 손경자, 「전통한복양식」, 교문사, 1995
- 7) 금기숙,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1994
- 8)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아름다움 : 옷, 장신구, 보자기, 통천문화사, 1988
- 9) 황신엽, 「민속의상」, 한국의상협회, 1990
- 10) 황신엽, 「민속의상」, 한국의상협회, 1991
- 11)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한민국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작품집 1990~1991」, 1992
- 12) 신난숙, 「현대한복구성」, 이태아서적, 1990
- 13) 김민자, “한국패션의 고유디자인에 대한 발전적 모색”, 산업디자인 110, Vol 21, 1990
- 14) 김인경, “현대 복식 조형의 한국적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장식미술학과 석사논문, 1989
- 15) 이미혜, “현대 여성 복식디자인에 나타난 한국 전통 복식요소”, 성신여대대학원 석사논문, 1988
- 16) 남숙현, “금박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이화여대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 전공 석사논문, 1992
- 17) 김문자, “조각벽의 조형성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대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전공 석사논문, 1990
- 18) 문영희, “한국 전통 복식의 선을 이용한 디자인”, 이화여대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전공 석사논문, 1986
- 19) SFA 서울컬렉션작품집, 멋, 1992년 6월
- 20) SFA 서울컬렉션작품집, 멋, 1993년 1월
- 21) SFA 서울컬렉션작품집, ELLE, 1993년 6월
- 22) SFA 서울컬렉션작품집, ELLE, 1994년 1월
- 23) SFA 서울컬렉션작품집, ELLE, 1994년 6월
- 24) SFAA 서울컬렉션작품집, ELLE, 1995년 1월
- 25) SFAA 서울컬렉션작품집, ELLE, 1995년 5월
- 26) SFAA 서울컬렉션작품집, ELLE, 1996년 1월

- 27) PARIS, MILAN, NEW YORK COLLECTION, ELLE, 1996년 4월
- 28) Jean. A. Hamillton, Press as a cultural sub-system, Clothing & Textile Research Journal, vol 6 No3, 1988, pp.1~3.
- 29) Yung Sen Tong, Chinese Influence on Selected Designers During the Decade 1961~1980, Masters dissertation Ohio University, 1984, p.71.
- 30) Harret. T. Macjimsey, Art in clothing selection, Harper & Row Publisher, 1963

ABSTRACT

The research on the recognition of the beauty of the korean traditional dress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sublimate our design with common sence so that the design concept with our traditional characteristics can be acceptable in the world design area through re-creation works of tradition to be adoptable to modern concept. From this survey the following could be derived.

1. In Korea, designers should concern about the ratio of skirt (Chima) to jacket (Chogori), plait of Chima and string Koreum of Hanbok,

however they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string and color stripes to attract foreign customers in international market. It was found that Koreans prefer the elegant and curvaceous design while foreigners demand decorative design of Hanbok in addition to its elegance and curvaceousness.

2. It was also found that korean ramie fabric might be the most popular material for Hanbok in Korea., however silk and fine gauze might have to be used in international market. Generally, it would be better to use the materials with natural and delicate feelings in Korea while the materials with gorgeous feeling in addition to natural and delicate feeling should be used in international market.

3. For the figures on Hanbok, the embroidery figures and pictorial figures would be appropriate in Korea whil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design with embroidery figures and gold foiled figures to satisfy the foreign customers.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develop the designers with figures with more elegant and gorgeous sence in both Korea and the world area.